

가구디자인에 있어서의 네오-아방가르드적 특성 연구¹

-1960년대 전후 사조를 중심으로-

최이승^{*2} · 김형우³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Neo-Avant-Garde in Furniture Design¹

-Focusing on the Thought before and after the 1960s-

Lee Seoung Choi^{*2} · Hyung Woo Kim³

ABSTRACT

The historian called Peter Burger divided it into historical avant-garde before and after the first World War (Dadaism, Futurist, Geometric Abstract, etc.) and Neo-avant-garde during the period of forming social foundation that would be ready to accept new forms of art in the USA, the center of capitalism, after the 2nd World War such as pop art and conceptual art including the then emerging avant-garde minimal art. Meanwhile, he interpreted that Neo-avant-garde succeeded the spirit of historical avant-garde. For modern furniture, the avant-garde terminologies are discussed from the aspect of epistemology or symbolism. On the other hand, they would be exclusively used for advertising slogans, however, it is considered as difficult due to vague terms or their characteristics. This study relates the points of historians such as Peter Burger for theoretical proposal and Richard Kostelanetz's point for formal issues, and contracts and arranges the avant-garde terminologies and its characteristics to the meaning of "getting out of the present decadent trend - aiming for future", "transcending the present aesthetic custom - renovation" and "violating the rules already established in the process of entering new areas - freshness of unfairness". The study was meaningful in providing fundamental clues based on the historical discussion and artists for Neo-avant-garde in the 1960s, that is, the mainstream of design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in the period when an avant-garde oriented alternative in the 21st century design has been sincerely required overflowed with the fin de siecle phenomenon.

Keywords: Furniture design, modern furniture, Neo-Avant-garde characteristics.

1. 논문접수: 2008. 03. 01.

2. Hong 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Seoul, Korea.

3. Division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Professor, Hong Ik University, Seoul,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최이승 (E-mail: newart@iansan.net).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의의

고대로부터 가구는 인간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변모하는 과정에서 가구에 부여되는 어떤 즘 '-ism'이나 사상 등을 사학자들이 그 철학적 견해를 담아 의미를 부여하곤 하였다. 최초의 가구는 오크니제도(Orkney Islands)의 스카라브래(Skra Brae)를 비롯하여 상징성, 농업혁명, 기술적 진보, 재료의 변화, 정보의 발달 등에 따라 연구되어지고 그 의의를 제공하곤 한다. 20세기는 아방가르드 시대라고 할 만큼 새로움에 대한 자극과 형식적 사고가 끊임없이 추구되어왔던 시기이다. 용어 자체는 중세부터 사용되어졌고 문학적, 이론적인 언급은 르네상스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한 아방가르드는(진2004) 지금 이 순간에도 적용되어지고 그 이념과 철학적 사고가 가구의 역사 속에서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방가르드적 표현과 특징은 언어적으로 또는 행위자체에 있어서 그 의미나 해석방법이 모호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히 가구에 나타나고 있는 네오 아방가르드적 특성과 의미를 뚜렷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사조의 연구를 통하여 21세기가 추구하는 가구 디자인의 경향(Trend of Design)을 예견할 수 있는 기초적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은 자본주의 중심이 된 미국이 아방가르드의 예술적 영역을 수용할 수 있었던 196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네오아방가르드의 그 특징과 의미를 연구하는데 있으며, 네오아방가르드의 모체인 모더니즘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드러난 네오아방가르드가구의 성향을 표면화하고 있다. 여기에서 본 논문은 두 가지의 중요한 요점을 파악하고 있다. 하나는 아방가르드의 선행적 의미와 그 의미가 가구에 나타나고 있는 모호한 현상을 탈피하기 위하여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네오아방가르드가 가지는 핵심적 용어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이다. 네오아방가르드의 선행적 의미를 정의하기 위하여 먼저 모더니즘을 비롯한 네오아방가르드의 정의를 이끌어낸 사학자- 레나토 포지올리(Renato Poggioli, Florence 1907-1963), 이합 핫산(Ihab Hassan, Cairo, Egypt, 1925-), 마이클 뉴만(Michael Newman, Los Angeles, 1957-)-등의 이론적 사료를 통하여 사적의미를 조사된 바에 의해 전달하고 있다. 또한 가구에 있어 1960년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 사조를 분석하여 그 사조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가구에 나타난 현상을 열거하여 네오아방가르드에 접근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용어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하여 결론으로 도출되어진 방법은 리처드 코스텔라네츠(Richard Kostelanetz, New York City, 1940-)의 『아방가르드』라는 그의 저서와 가구에 나타나고 있는 네오아방가르드 특성에서 공통적 현상을 추론하여 그것이 결론으로 연결되도록 근거하고 있으며, 대표적 작가와 작품을 도판으로 삽입하여 보충하고 있다.

2. 네오아방가르드의 개념과 미술사적 배경

2-1. 네오아방가르드의 개념

아방가르드(Avant-garde:前衛)의 본래 뜻은 불어의 군사용어로 전방을 호위하는 정예부대를 가

리키는 말이었지만 예술에 적용되어 미술을 포함한 예술 문화 전반의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 되었다. 이러한 개념은 의미나 뜻이 바뀌어 혁신적인 예술 활동을 지칭하거나 남보다 앞서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였던 20세기 초의 예술운동 즉 이탈리아의 미래파, 러시아 구성주의,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 등을 지칭해서 쓰이고 있다(정2002).아방가르드적 표현은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지역에 따라 상당히 다른 의미로 사용 되었으나 급진적 성격의 특정한 문화적 실천적 의미로서의 사조를 대변하는 용어이다.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몇 가지 특성 등을 열거하면, 가장 앞서 있는 개념과 이미지에서 다시 탈피하는 것, 보는 것과 그리는 방식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 새로운 예술, 젊은 예술, 추상미술, 모던 스타일, 비인간화된 예술, 무의식세계의 규명, 원시예술의 발굴, 사회의식의 확대 등 신시대적인 여러 요인이 포함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1939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실용주의, 기능주의 정착으로 제품의 품질이 높아지고 이를 부흥시키기 위한 국가적 정책과 더불어 합리적으로 개발되는 움직임이 활발하였다. 이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산업기술 분야에서는 트랜지스터 개발과 플라스틱 개발의 시작 등으로 급진적인 발달을 가져오게 된다. 이 때 등장한 전위적인 새로운 미적 개념을 가진 진취적인 역사학자 뷔르거(Peter Burger,1936-,'Theory of the Avant-Garde ',1974)는 마르셀뒤샹(Marcel Duchamp,프,1887-1968)과 다다(DaDa)등의 전위적인 세대를 역사적 아방가르드라 하고, 그 영향을 받은 미니멀아트(Minimal Art), 팝아트(Pop Art),개념미술(Conceptual Art) 등의 사조를 네오 아방가르드(Neo-avantgarde)라 명명하고 있다(정2002).

2-2. 네오아방가르드의 미술사적 배경

2-2-1. 모더니즘(Modernism)

20세기 전반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모더니즘은 건축을 비롯한 산업디자인 분야에서 활발하게 적용되었으며 모더니즘의 역사는 현대미술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있다. 네오 아방가르드도 모더니즘에서 비롯되며 기점이 되고 있다. 마르셀 브로이어(Marcel Breuer),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미스 반 데 로에(Mies van der Rohe)같은 건축가들의 가구는 산업디자인에서 모더니즘 디자인의 아이콘(Icon)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미스 반 데어 로에는 근대 건축과 디자인의 거장들 가운데 모더니즘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그가 주장한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라는 말은 20세기 디자인 사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네오 아방가르드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시대의 제품조형은 기존의 역사적 양식(樣式)과는 무관하게 생산기술에 맞는 절대 즉물적인 성향을 기초로 단순하며 기하학적인 조형성을 보인다. 이러한 조형전개는 기능주의에 대한 의문을 제시함으로써 후에 네오아방가르드 사조인 미니멀리즘의 모태가 된다(Werner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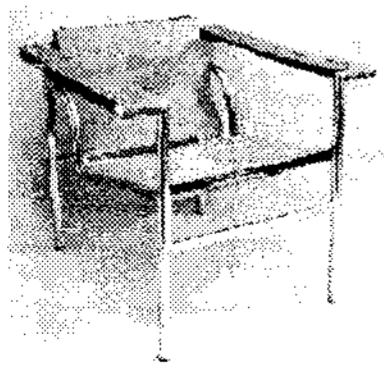


Fig.1. Le Corbusier
"LC 2 PEIT
CONFORT", 19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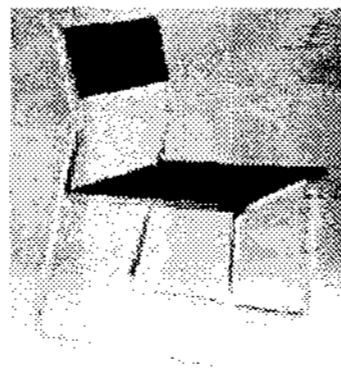


Fig.2. Marcel
Breuer- Model No.
136, 1926.



Fig.3. Mies van
der Rohe-Model
No. MR10, 1927.

1939년과 1940년에 모더니즘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논의를 펼쳤던 사학자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 America, 1909-94)는 대표적 논문「아방가르드와 키치」,「더 새로운 라오콘을 향해」를 각각 발표하면서 부르주아 문화나 퇴폐적 형태 같은 수준 낮은 문화의 유행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그에 대안으로 아방가르드를 제안한다. 이러한 아방가르드 논의는 1965년에 발표된 「모더니스트 미술」에서 정치적 상황 -냉전이 계속되고 매카시즘이 기승을 부리는- 과 미술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고려해서, 형식주의적인 입장을 더 강조하게 되었다. 그린버그는 미술의 그 매체의 한계를 드러내고 그 사실을 인정할 때 모더니즘이 시작된다고 보았다. 즉 평면성, 매체의 물성, 그로 인한 모든 구속과 인습을 탈피하는 과정이 모더니즘의 정의라고 보았다(진2004). 2차 세계대전 이후 가구양식의 중심지가 미국을 중심으로 옮겨갔으며 새로운 가구디자인과 제작 기술이 개발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전쟁의 참화를 피해서 미국에 온 많은 작가들이 정착하는 요인과 더불어 현실을 극복하고자하는 새로운 예술경향이 정착하는 요인이 된다. 예술경향이 초현실주의 또는 표현주의로 표출하게 되면서 현대작가 들에게 주어진 미술의 운명을 극복하려는 사상이 되었다(정2002). 모더니즘의 시작은 회화에 있어 마네(Edouard Manet, 프, 1831-1883)로부터 시작하여 20세기 중반 추상표현주의(Abstract Expressionism) 작가들이었다(Clement 1965). 추상 표현주의 작가들은 “미술의 개념은 오직 개별적인 예술장르 내에서만 전적으로 의미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무한의 정신적 에너지와 행위성을 중심으로 작가의 내적 표현을 중시한 추상 표현주의는 유럽중심의 전통 미학을 초월하여 미국을 서구 미술의 중심으로 자리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모더니즘은 네오아방가르드와 반드시 대척되는 개념도 아니고, 1920년대의 미술에만 적용되는 개념도 아니다.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보완하고 완성해주는 네오아방가르드에 대해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 기호학, 해체론, 심리학, 언어학 등이 새로운 비평의 틀을 제시하고, 형식주의 사관을 극복함으로써 긍정적인 관계를 이루어낼 수도 있다.(진 2004)

2-2-2. 팝아트(Pop Art)

1960년대에 이르러 디자이너들은 유토피아적 이상과 이념으로 뭉쳐진 모더니즘으로는 더 이상 새로움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과 상업적인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락해 가는 모더니즘의 한계를 느끼고 팝아트의 자유로운 표현과 재미있는 기법에 매료되기 시작하였다. 모든 디자인 분야에 파급된 반 모더니즘, 탈 모더니즘의 움직임은 팝 디자인을 돌파구로 향하게 하였다. 추상 물질의 영향을 받고 그에 추종했던 미술사를 의식했던 화가들이 만들어낸 이 예술은 대중적 도상을 사용하는 회화와 조각 작품들로서 근본적으로는 “예술”에 관한 것이다(Richard 1997). 1960년대부터 태동한 대중예술로서의 팝아트는 전통과 인습을 거부하는 네오 아방가르드적 성향을 가지고 출발하여 반체제적이거나 우주적, 초현실적, 그리고 장난스러움 등의 경향을 선보이며, 70년대 까지 그 영향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새롭거나 진보된 기술과 재료의 혁신을 통한 다양한 제작 형태의 가구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03).

팝아트의 기본 개념은 추상표현주의의 위세가 당당했던 시기에 뉴욕에 등장한 젊은 두 작가는 새로운 형태의 미술을 시도한다. 그들은 무엇이든 새로운 것에 빠르게 반응했던 미국인들에게 각광을 받는 동시에 전통적 비평가들에게는 예술의 파괴자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존스(Jasper Johns, 미국, 1930-)와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 미국, 1925-)는 팝아트의 선구자로서, 그들

의 작품을 통해 미술에서 일상성의 회복이 진행되었다고 보기도 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모더니즘에 종지부를 찍고 포스트모더니즘으로의 진행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네오아방가르드의 형성을 알려준 중요한 작가이다(진2004).

야스퍼존스는 <네 개의 얼굴과 과녁> Fig. 4에서 신문지를 잘라 바른 평면에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얼굴, 또는 신체의 일부분을 석고로 떠서 함께 전시했다. 동일한 형태의 네 얼굴들은 이후에 유행할 팝아트에서 복제, 반복의 기법을 예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무엇보다 존스는 추상표현주의에서 주관적이고 관념적이던 회화에서 벗어나 일상적이고 쉬우면서도 객관적인 주제를 정착시키는 쾌거를 이룬다(진2004). 이밖에도 존스는 아방가르드가 보여주는 레디메이드의 채택 신문지나 폐품활용, 동물박제와 코카콜라병의 이용, 순수 미술과 관념미술에 대한 도전 등이 네오아방가르드와 많이 닮아있다.



Fig.4 Jasper Johns, Target with Plaster Casts 19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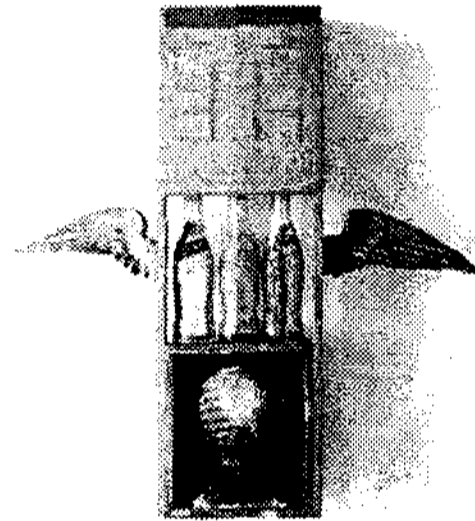


Fig.5. Robert Rauschenberg. Coca Cola Plan .1958.



Fig.6. Just what is it that makes today's homes so different, so appealing, 1956.

라우센버그 Fig. 5의 독특한 장르는 바로 혼합 회화로 조각도, 회화도, 오브제도 아닌 새로운 개념의 작품을 만든다. 이는 평면과 입체가 조각이나 회화처럼 고전적 방식에 모호하게 기반을 둔 채로 전시된다. 존스의 작품과 라우센버그의 <코카콜라 플랜>은 팝아트의 문을 여는 열쇠를 예견한 중요한 단서가 된다(진2004). 영국 팝아트의 선두 주자이자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인 해밀턴(Richard Hamilton, 영국, 1922-)은 앤디 워홀(Andrew Warhola, 미국, 1928-1987) 보다 먼저 팝아트를 완성하고 그 명칭을 유통시킨 선구자이다. 그의 대표작인 <도대체 무엇이 오늘의 가정을 이토록 색다르고 매력적으로 만드는가?> Fig. 6는 자신이 기획했던 <이것이 내일이다>전에 출품한 것으로, 가사를 편리하게 돕는 생필품들, 소비품들, 가전제품들로 가득한 집안의 모습을 적절하게 콜라주해서 보여준다. 그림 중앙의 남성이 손에 든 사탕의 <pop>이란 글자가 비평가 앨로웨이(Lawrence Alloway, 미국, 1926-1990)에 의해 팝 아트란 명칭으로 바뀌게 되는 주요 동인이 된다(진2004). 해밀턴의 작품에 나타나고 있는 대중매체가 제공하는 가공의 이미지나 상업화된 대중문화의 발달이 가져온 현실과 환상의 혼돈을 그대로 보여준다. 해밀턴은 열한가지 대중문화의 계율을 지적한다. 통속적일 것(대중을 위해 고안된), 일시적일 것(단기간에 해결되는), 대량생산될 것, 소비적일 것(쉽게 잊혀지는), 성적 매력을 보일 것, 젊음에 관한 것일 것, 저렴한 것, 참신할 것, 매혹적일 것, 대형 사업일 것, 재치가 있을 것 등이다. 그의 설명은 대중문화의 본질과 모순을 적절히 표현해 주며, 1950년대 런던뿐 아니라 현대 자본주의 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Richard1968). 팝아트의 영향은 강하고, 풍부한 것으로서 기능적이고, 인간공학적인 면보다 유희성을 사용가치의 우위에 두고, 시각적인 매력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가구의 분야에 있어서는 환상적인 연구로서 새로운 재료와 형태에 대한 시도에 의한 거의 광기어리다고 표현할 수 있는 재미있는 다수의 작품들이 선보이게 된다.<Fig7, Fig8, Fig9, Fig10참고> 팝아트의 새로운 디자인 경향은 이탈리아 디자이너들의 용기 있는 시도에 의해 주도 되었으며 네오 아방가르드적인 경향을 선도 하였다. 이들은 네오아방가르드의 특성에서 볼 수 있는 소비사회와 도시중식이라는 비인간화에 대한 불길한 조짐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며, 전통에 대한 재해석, 재 디자인, 은유를 통한 인간성회복, 다양한 색채와 장식의 시도, 그리고 탈 유형화 등을 시도 하였다(한국실내디자인학회2003).1960년대 가구디자인은 재료의 다양성과 형태의 자유로움이 지배하던 시기였다. 특히 플라스틱(Plastic)은 제2차 세계대전 전쟁무기 개발에 따른 발명으로 가구디자인에 있어서는 이후 혁신적인 바람을 일으키던 시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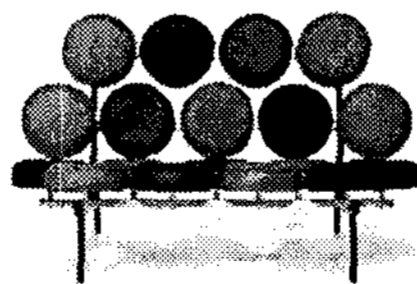
덴마크 디자이너인 베르너 팬톤(Verner Panton,1926-1998)은 티크나무 가구를 사용한 스칸디나비아 전통적인 공예 제작 방식을 타파한 디자이너 그룹의 일원이었다. 팬톤은 1949년부터 1950년 사이 코펜하겐의 왕립 예술학교 시절부터 이미 뒷다리가 없는 의자를 제도 하였다. 1955년에는 몰딩 구조된 합판을 가지고 하나로 연속된 S-곡선의자를 만들었고, 이것이 이후 그의 가구 패턴의 일부가 된다.



Fig.7. Verner Panton "Panton Chair" by Verner Panton for George Nelson, "Mars Herman Miller, 1960.



Fig.8. Verner Panton, "Living tower", 1960.



hmallow" Sofa, 19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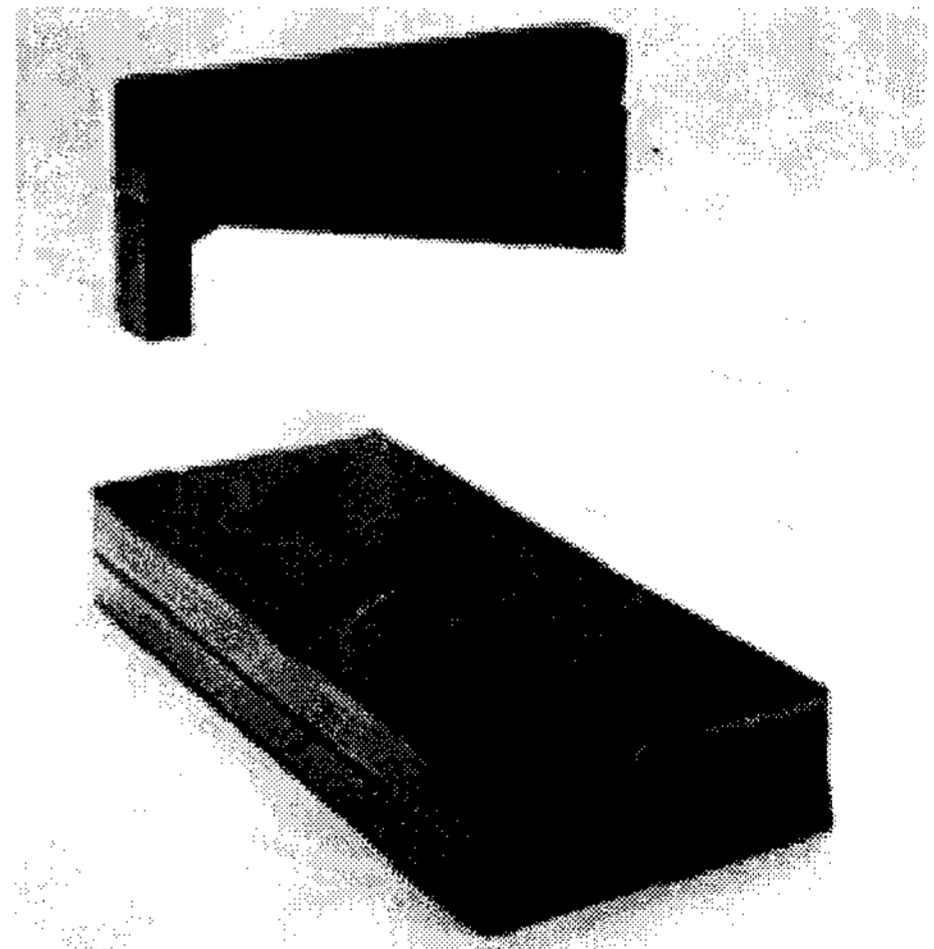


Fig.10. Branzi, Andrea, "superonda",

1968년 'Panton Chair' Fig. 7는 비트라(Vitra_Design_Museum)와 허먼밀러(Herman Miller) 컬렉션이 합동 작업한 최초의 생산품이 되었고 빠른 속도로 팝아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올랐다(로렌시나2006). "Panton Chair"는 가구이상의 개념으로 일상적 생활의 틀을 벗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며 대기와 형에서 형성되는 조각이다"(Lesley1998) 라고 논하고 있다. 이 팬톤 의자는 팝아트의 기본적 특성을 여러 가지 면에서 읽을 수 있는 작품이다. 스택킹(Stacking)의자로 반복

되는 구성과 기능을 시각적으로 가시화 하였으며 식물의 모티프를 활용하여 인간성을 회복하고 자한 탈 유형화를 극복하고 함이 네오 아방가르드적 특성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의 작품 '팬타워' Fig. 8는 입방체 모양을 기본으로 한 의자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곡면에 기대거나 오르거나 기어 엮드리는 등 다양한 자세가 가능하다. 여기에서도 뎀톤의 의도, 즉 새로운 가구 개념을 일상의 새로운 형태로 전환하려는 네오아방가르드의 팝아트적 시도를 읽어 낼 수 있다(로렌시나 2006). 조지넬슨(George Nelson)의 '머시멜로우(Marshmallow)' Fig. 9는 팝 아트의 영향을 받은 초기 가구 디자인 중 하나이며 일반적인 의자를 부드럽고 다채로운 색채와 반복되는 구성으로 쿠션을 이어붙인 3차원 구조로 재탄생 시켰다(로렌시나2006). 이러한 팝아트는 형태의 접근방식이 적극적으로 구상성을 회복하고 생활과 미술의 간격을 좁히려는 당시의 여러 작가들에 의해 더욱 다양한 이미지를 생산하고, 그것이 다시 미술과 문화 전반에 영향을 더하고 있음을 파악한다(진2004).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안드레아 브란치(Branzi, Andrea, 이태리, 1938-)는 아키Zoom 어소시어티(Archizoom Associati)를 설립하여 1964년부터 74년까지 급진적인 아방가르드적 건축운동을 이끌었고, 파리의 퐁피두센터와 같은 새로운 건물들을 디자인했다. Fig. 10의 "superonda"에서 보이는 그의 디자인과 작품성은 실험적이고 장난기가 있는 성격이 특징이고 모더니즘을 탈피하기 위한 작품으로 네오아방가르드의 팝적인 성격을 포함한다.

2-2-3. 미니멀리즘(Minimalism)

1950년대 디자인이 순수 기하학적 모더니즘의 특성이 반영된 기능적 디자인의 주류를 이루는 곳 디자인의 추구였다면, 1960년대에 나타나는 디자인은 과거의 모더니즘의 직접적 반기를 들고 나선 미국의 젊은 작가들이 최소한의 조형 수단으로 표현방법을 표면화한 회화나 조각을 말하며, '최소한의 예술'이라고도 일컬어진 네오 아방가르드인 미니멀리즘이 등장한다(한국실내디자인학회2003). 1960년대 미국은 개인의 정체성이라는 순수한 사실에서 새로운 조류의 자생적인 풍부함이 도래하며(Kenneth1993), 모더니즘 미학인 추상표현주의를 벗어나 이성적으로 차분한 시대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본질에 대한 탐구와, 자기반성을 통한 세계에 대한 자각 등을 통하여 감정이나 정서가 제거된 최소한의 것으로 이루어지는 네오 아방가르드적 미니멀리즘을 이룬다.

팝아트는 전통에 의해 확립된 모델의 모방에서 혹은 새로운 대중매체에서 파생된 레퍼토리어서 의미를 발견하였다면, 미니멀 아트는 대상의 원점(zero point), 즉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 프랑스, 1915-1980)의 1953년의 유명한 텍스트-「Le Degre Zero De L'Ecriture」-에서 차용한 원점을 미니멀 미학의 기반으로 삼았다. 미니멀리즘은 모더니즘에 대항하고자 하는 정신적 배경에서 네오아방가르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 현실공간에 있는 입체작품의 미니멀리즘특징은 형태의단순성 재료의단일성 구성의 반복성 환원성 환경 친화 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기하학적인 입방체(정사각형, 정육면체 등)에 단순한 형태에 일정 시스템을 채용, 동일단위의 병렬, 반복 하고 열거하거나 혹은 단일 형태로 물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정2002). 이러한 단순화 경향은 특히 가구에 있어서 장식에 대한 배세로부터 출발된다고 볼 수 있다. 장식의 역할은 가구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건축가 아돌프 로스(Adolf Loos, 오스트리아, 1870-1933)는 "장식과 죄악(1908)"이라는 평론에서 미와 장식을 동일시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문화의 발전은 일상의 사물에서 장식을 제거함과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했다. 아돌프 로스는 대중의 수준의 낮을수록 장식을 원하고, 특히 표면장식만을 강조하는 것은 마치 현대의 범죄와 문신의 관계와 같다고 주장하

였다. 그는 장식에 의존한 미의 추구보다 사물의 형태미를 발견하여 다른 부분과의 조화를 꾀하는 기능성을 무장식의 공간 속에서 유일한 예술미로 간주 하였다. 이것은 장식이 나쁜 것이고 최악스러운 것이므로 동시대에 사라져야 한다는 최초의 명확한 주장 이었다(한1999). 독일 브라운(Braun)회사의 디자인 부서를 관장하며 함부르크 소재 대학 교수로 있는 디터 램스(Dieter Rams,독일,1932-)는 미적 특질이 다른 시각요소들 간의 조화와 균형이며 ‘좋은 디자인(Good Design)’이란 가능한 적게 디자인하는 것으로써 “디자인에 있어 우리의 유일한 최선의 선택은 단순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조형적 요소에도 그렇고, 기술적 디테일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불필요한 장식적 요소 및 넘치는 기능까지도 모두 절제하여 만드는 것이 오늘날 미래를 준비하는 디자이너의 마지막 사회적 책임일 것이다.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사회 속에 사람들은 무수히 많이 넘쳐나는 사회의 여러 현상 속에 적응해 가야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어 이럴수록 사회의 혼돈으로부터 스스로를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한 유일한 해결방법이 바로 “절제된 단순인 것이다(John1996).”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맥락은 아방가르드인 신 조형주의와 모더니즘의 선구자격인 그로피우스작품에서도 적용됨을 발견할 수 있다. 미니멀 경향은 순수예술분야의 조형연구에 국한되지 않고 시차를 두고 점차적으로 건축, 제품, 패션 등 디자인분야 전반이 그 성질을 조금씩 달리하여 전이 되어 갔다. 다른 조형사조들처럼 미니멀리즘 또한 현대에 이르기 까지 세분화와 다양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단일한 조형사조로 존재하기 보다는 디자인 전반에 각각 희석되었다(정2006). 미니멀리즘의 선두에 있는 작가인 저드(Donald Judd,미국,1928-1994)의 <무제><Fig.11>는 미니멀리즘의 전형이자 가장 대표적인 형식이다. 저드는 기하학적이고 단순한 형태의 사물을 배열하고 반복과 연속이라는 규칙을 이용한다. 이는 전체를 조화롭기 보이기 위한 구성적 발상이 아니라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 없는 상당히 무작위적인 행위의 결과로 과거 작가의 이성적, 논리적, 주관적 구성 체계를 배제한 작품 구성법이다(진2004.). 저드는 “어떤 이가 동시에 예술작품을 만들고 가구나 건축을 한다면 거기에는 유사점이 있을 것이며 많은 관점이 형식적으로 일관적일 것이다. 당신이 단순한 것을 좋아한다면 건축이나 디자인에서 역시 복잡한 것을 창출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며 재료들이 본질 그대로 이해되기를 원하였고 어떤 은유적 의미나 설명을 삼가고 작품의 기본은 공간, 부피, 빛, 색상, 재료의 지각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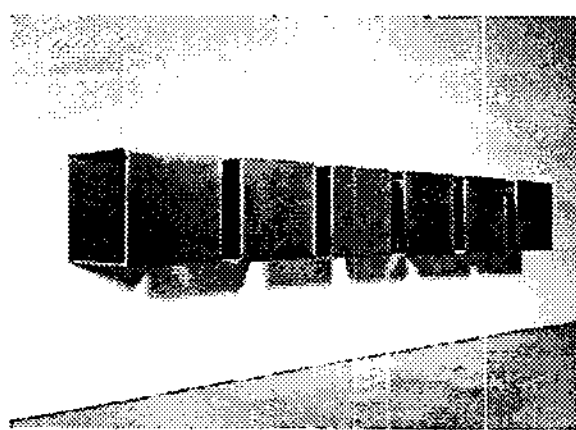


Fig.11. Donald Judd, 무제, 1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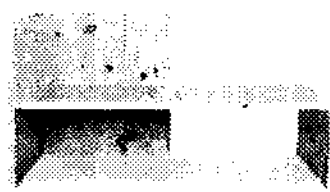


Fig.12. Donald Judd, Wintergarden Bench,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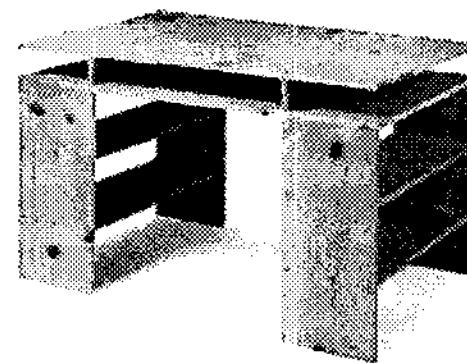


Fig.13. Donald Judd, An Important Prototype Desk pine ,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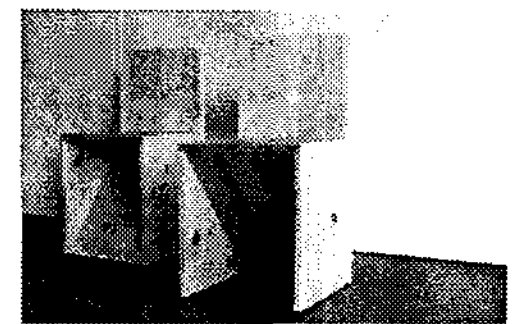


Fig.14. Donald Judd, Two Side Chairs, 1989.

미니멀 리스트들은 이미지의 문학적 의미 내지 심리학적 의미와 같은 미술대상의 ‘내부’ 보다는 미술대상의 물리적 배경이나 관찰자의 반응이라는 미술대상의 ‘외부에’ 내용을 두는 경향이

있다(Kenneth1993). 일상적으로 미니멀 아트는 <ABC 예술>,<기초구조 Primary Structure>, 또는 <문자 그대로의 예술 Liberalist Art>등으로 불린다. 단순하고 축소된 형태, 또는 순수한 형태, 논리적 구조와 관념적 해석 등으로 이해된다. 미니멀 아트는 1960년대의 가장 중요한 예술중의 하나인데, 포스트모더니즘 또는 네오아방가르드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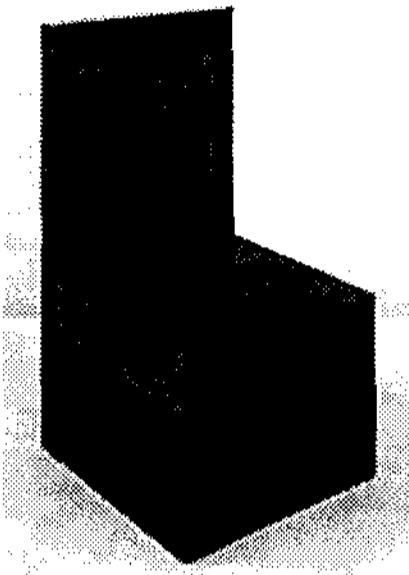


Fig.15. Richard Artschwager, Chair, 1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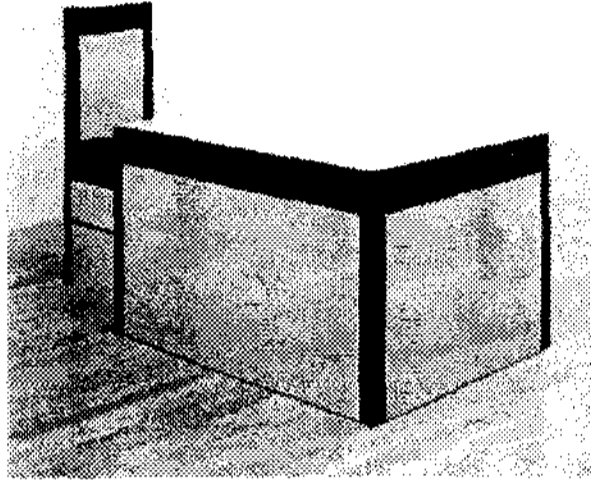


Fig.16. Richard Artschwager wall 1967. TABLE AND CHAIR, 196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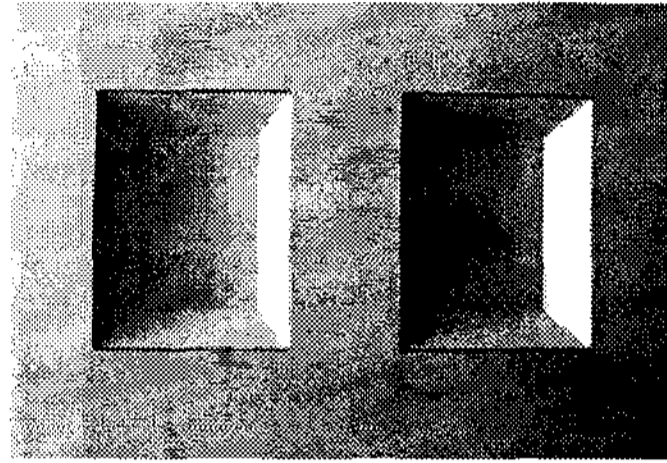


Fig.17. Richard Artschwa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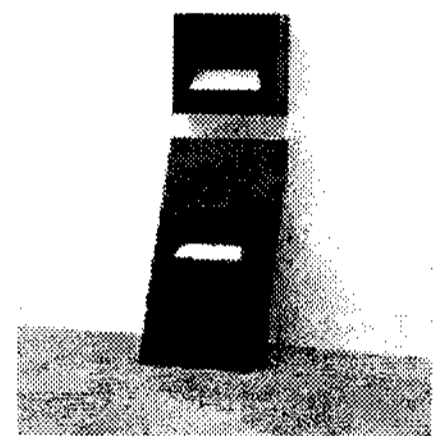


Fig.18. Richard Artschwager, Step On, See, 1966.

리처드 아트슈웨이거(Richard Artschwager, 미국, 1923-)는 아방가르드에서 환원적이고 현상학적인 기하학적인 형태를 취하고 공간구조에 관한 예술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인터뷰를 하였다. “당신이 그 위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의자이다. 만약 당신이 그 주변을 배회하면서 바라보고 있다면 그 것은 조각품이다. 당신은 그것을 이미지와 사물 두 가지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예술의 영역이란 작품을 바라보는 관객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라고 주장하여 현존과 장소란 개념으로 작가는 물론이고 관람자 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의 미술의 의식을 가진 아방가르드적 인식의 물성을 발견하게 된다. 할 포스터(Hal Foster, 미국, 1892-1982)는 1960년대 네오아방가르드를 전도한 두 경향이 소위 포스트모더니즘의 물꼬를 트고 있다고 보고, 역사적 아방가르드의 개념과 가까운, 상당히 복잡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 포스터는 미니멀 아트와 팝 아트가 모두 <반복>을 중요한 작품구성의 요소로 사용함에 주목하고 그것이 새로운 기계적 생산 조건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뷔르거의 개념을 따라 아방가르드하다고 본다. 포스터는 모더니즘의 보편적 해석 즉, 기계적 첨단 매체의 사용이나 방법의 현대화라는 요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뷔르거가 주장하는 아방가르드의 개념을 네오 아방가르드인 포스트모더니즘 미술로 확대 적용시킴으로써 개념의 정립을 도모한다(진2004).

2-2-4. 개념미술(Conceptual Art)

개념미술은 미니멀 아트가 유행한 이후에 형성된 물적, 개념적 미술 범주의 확산 과정에서 형성된 미술로 뒤샹과 다다이즘의 반 미술적 경향을 극대화시킨다. 개념 미술은 좁은 범위의 미술에서 벗어나서 완성된 시각적 결과물 이외에도, 발상이나 실제 작품에 상응하는 어떠한 과정 자체를 의미 있게 만드는 범주이다(진2004). 이 예술은 급진적 개념은 반드시 말로 표현되지 않은 선언이라도 적절하게 해석된다면 미적 경험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Richard1997). 사진 또는 도표로 나타내는 문서 등을 수단으로 종래의 예술에 대한 관념을 외면하고 완성된 작품 자체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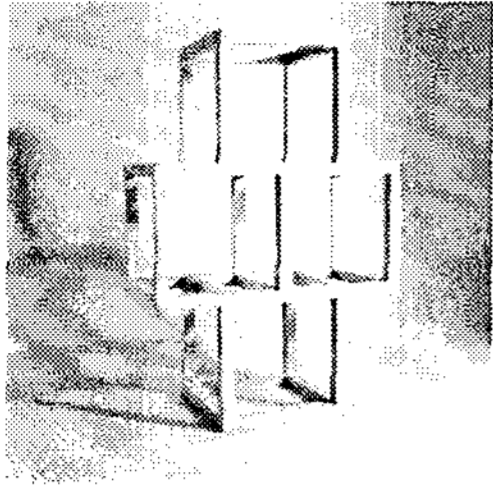


Fig.19. Sol Lewitt, Four Cubes, 1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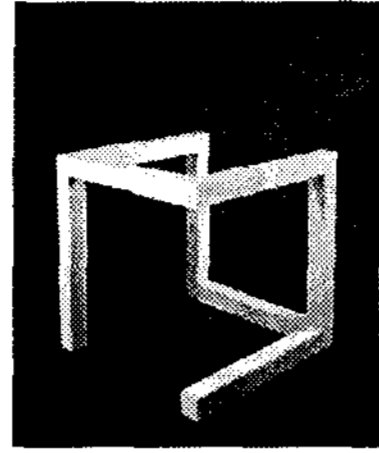


Fig.20. Sol Lewitt, Avatud kuup 1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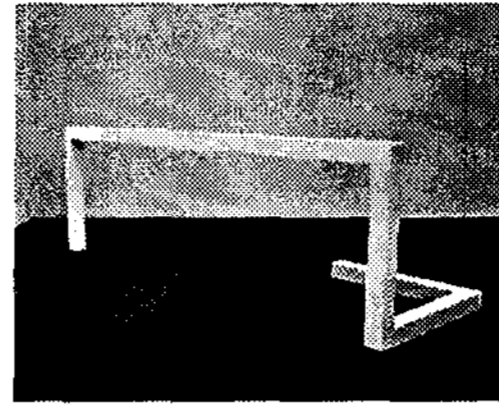


Fig.21. Sol Lewitt, Sol kunstverein altered, 1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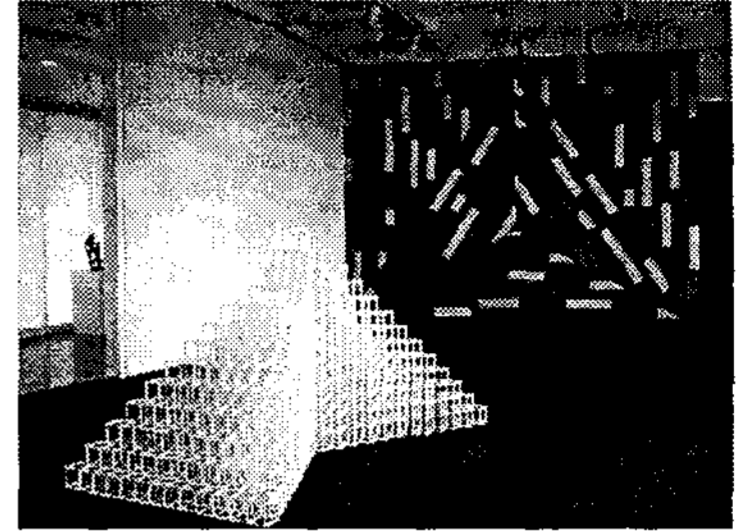


Fig.22. Sol Lewitt, installation, Wall Drawing no. 1113 and painted wood cube stack, 1999.

다 아이디어나 과정을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네오아방가르드의 특성인 반(反)미술적 제작태도를 가진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동유럽권을 포함해서 북미, 남미, 오스트레일리아 및 일본에까지 확산되어 있다. 그 맥락은 예술의 '최소한'을 강조하는 미니멀아트의 논리적 귀결에서 찾을 수 있다. 초창기부터 추상(Abstract)화가로 활약하면서 기하학적 체계에 관심과 다작을 했으며 조각, 벽드로잉, 그리고 개념미술에 관한 저술로 유명한 솔르윗(Sol LeWitt, 미국, 1928-2007)은 개념미술을 이해하는 근원이 되고 있다. 그의 조각 작품의 주제를 요약하면 입체의 변형이라 할 수 있는데 그는 여러 해에 걸쳐 입체들을 다양하게 배열하기도 하고 쌓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미완성으로 남기면서 개념미술을 전달한다. 그의 「개념미술에 관한 글」에서는 “모든 계획과 결정이 사전에 이루어지며 제작은 기계적인 일이다. 아이디어는 미술을 만드는 기계가 된다. 이런 종류의 미술은 이론적이지도 않고 이론을 설명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직관적이다, 그것은 모든 유형의 정신적 과정과 연류되어 있으며 목적이 없다(Richard 1997).”라고 말하고 있다. 그의 작품의 중심에는 기하학적 입방체 패턴과 구조물을 토대로 전개되고 있으며, 예술은 실용성만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적인 것은 아니며 실용의 영역을 넓혀가는 만큼 기능적인 영역이 줄어들음을 설명한다.

1960년대 솔르윗의 작품은 미니멀아트와 개념미술을 혼용한다. 이러한 경향의 작업은 그의 설명처럼 체계적 환원이나 단순화하는 예술작품에서 기대하는 시각적 인지를 위한 기본 요소들을 극도로 무미건조하게 만든다. 그는 1968년 이후 벽드로잉에서 개념미술로의 전이를 알려준다. 여기에서 그는 “아이디어는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그것은 곧 솔르윗이 개념미술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 한다(정 2002).

개념 미술은 인지의 문제를 새롭게 본다. 읽기를 작품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보기, 만지기, 듣기, 냄새나 맛을 이용하는 등 감각 기관을 다양화하고 구체화하기도 한다. 또한 개념 미술은 형식의 문제를 새롭게 보며, 재료의 영역뿐 아니라 작품 존재의 형태도 부정형적 이고 불완전하거나 시간에 따른 변화를 포함하여 시간이 경과하면서 소멸되는 등 폭 넓은 모습으로 작품을 제작한다. 작가에 대한 관념도 해체되고, 언어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작품의 중요한 소재나 물적 근거로 삼기도 한다. 또한 개념미술은 제도나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특히 미술 제작과 수용에 관한 반 모더니즘적 흐름과 일치하고 그것을 선도한다. 그리고 팝아트와 미니멀 아트에 의해 도래한 네오아방가르드 미술의 노력을 과감하게 진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1920년대의 아방가르드를 다시 발전시키고 반 미술적인, 반 관습적인, 반미학적인 반 예술로 평

가되는 점에서 네오아방가르드의 대표적 사조이고, 1960년대 이후에 일었던 포스트모더니즘을 확장하고 완성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개념미술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외형적, 주제적 모습은 바뀌었지만, 모더니즘의 업적을 공격하고 거기서 새로운 실천을 마련하는 노력도 오늘날의 미술에까지 계승되고 있다(진2004).

3. 네오아방가르드의 특징

이합 핫산(Ihab Hassan, Egypt, 1925-)과 마이클 뉴만(Michael Newman, Los Angeles, 1957-)등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그 내용은 불확실성, 단편화, 재현 불가능성, 혼성모방, 대중주의, 행위, 참여, 보편내재성, 트랜스아방가르드, 저자의 죽음, 알레고리, 도취와 불가사의, 모조, 패러디, 브리콜라주(Bricolage), 차용, 등을 그 특성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 경향은 네오아방가르드와 유사하다. 로잘린드 크라우스(Rosalind E. Krauss, 이집트, 1941-)는 포스트모던요소가 내적 자율성과 자의성 안에서 어떠한 외부 간섭으로부터도 독자성을 확보하고 모더니즘 담론에서 기대했던 예술의 자생적 기능에 대한 설명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 보며 네오아방가르드를 포스트모더니즘의 범주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뷔르거의 견해와도 유사한 부분이 있다(진2004). 레나토 포지올리(Renato Poggioli, 프, 1907-1963)는 「아방가르드의 이론」이란 저서에서 아방가르드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적극적 행동주의(Activism) - 행동, 다이내미즘, 전진, 탐험정신 둘째, 대립의식(Antagonism) - 역사적 사회적 기본질서에 대한 대립의식, 반전통주의 셋째, 허무주의(Nihilism) - 파괴성, 유치함, 극단적 행동 넷째, 불안(Agonism) - 낭만적 불안, 긴장, 희생, 정신적 패배주의 다섯째, 미래주의(Futurism) - 미래의 예술에 대한 예견이나 예고이다.

위의 특성들 중에서도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보여 지는 몇 가지의 특성들과 공통적으로 보인다. 특히 대립의식은 모더니즘에 저항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상당부분 공통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팝아트의 반체제적이거나 우주적, 초현실적, 그리고 장난스러움, 대중매체가 제공하는 가공의 이미지유희성, 시각적인 매력, 전통에 대한 재해석, 재 디자인, 은유를 통한 인간성회복, 탈 유형화의 시도, 다채롭고 환상적인 가구의 상상력을 자극, 새로운 가구 개념을 일상의 새로운 형태로 전환, 작가의 감정을 배제, 본질에 대한 탐구, 논리적 구조와 관념적 해석, 작가에 대한 관념 해체, 언어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새로운 미래지향의 특성이 그러하다. 팝아트의 특성은 전술한바와 같은 맥락에서 영국의 팝아트 대표주자 해밀턴의 축약된 사항에서도 살펴 볼 수 있었다. 팝아트는 작품과 사상적 체계는 여러 가지 해석적 측면이 요구되어진다. 미니멀리즘에서는 주관적 편견과 작가의 감정을 배제, 최소한의 예술, 본질에 대한 탐구와, 자기반성, 비개성적, 작품의 색채와 형태의 단순성, 재료의 단일성, 구성의 반복성, 환원성, 환경친화성, 기하학적인 입방체의 병렬, 반복 등 논리적 구조와 관념적 해석을 극히 단순화하는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팝아트와 마찬가지로 미니멀리즘에서도 예술의 경계와 예술적 이질 자기반성과 본질에 대한 탐구로 새로움을 제시하고 있다. 개념미술의 특성은 발상이나 실제 작품에 상응하는 어떠한 과정 자체를 즉 아이디어나 과정을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범주로 해석하고 있으며,

작가에 대한 관념 해체, 언어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개념미술 또한 새로운 미래지향의 예술적 특성을 만들고 있다. 1960년대 이후 다양함과 다원화된 디자인의 현상들은 크게 포스트모던(Post Modern)스타일과 레이트모던(Late Modern)스타일로 분류가 된다. 고대와 현대적 장식재료 등의 절묘한 혼합에 의한 새로운 조형접근 방법, 다양한 색채, 과장과 은유적 성향은 포스트모던스타일의 특징이고, 하이테크재료와 기술적 방법에 의한 재료를 강조한 미니멀적 산업생산의 미학의 경향은 레이트모던으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형식적이고 선도적인 개념의 이탈리아 합리주의 아방가르드 슈퍼스튜디오(Superstudio)와 아키줌(Archizoom Associati)과 같이 전위적인 디자인그룹이 소비사회에 따르는 환경파괴나 비인간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상형에 대한 개념과 주거를 겸한 가구의 개념제안을 통하여 미래의 도시에 해결안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기도 하였다(한국실내디자인학회2003). 이러한 특성들은 1960년대 이후 예술에 있어 또는 가구의 배경을 연결고리로 파악하여 시대적 상황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4. 결 론

이론적인 대안인 뷔르거와 형식적인 문제의 리처드 코스텔라네츠가 논의한 아방가르드를 중심으로 네오아방가르드를 형성하는 구체적인 미술과 역사적인 문제의 형성을 1960년 이후에 나타나는 팝아트, 미니멀아트, 개념 미술에서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사학자들의 주장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양상으로 네오아방가르드의 특성을 피력하고 있다. 이것을 함축하여 정리하면 “현재의 퇴폐적 유행탈피-미래지향” “현재의 미적관습 초월-혁신”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미 구축된 규칙위반-부정의 새로움”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전통적 아방가르드의 특징인 개념이 네오아방가르드에서도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다. <Table.1참고>

19세기말의 모더니즘부터 20세기 중반의 네오아방가르드는 아방가르드라는 개념에서 서로 반발하고 충돌되기도 하였지만 근본적으로는 절충하고 변화하는 인식의 차원에서 충격과 흡수적 과정에 있다. 컬럼비아 대학교 근현대미술사학과 교수인 로잘린드 크라우스(Rosalind E. Krauss, 이집트,1941-)의 논문집「The Originality of the Avant-Garde and Other Modernist Myths」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진행된 모더니즘은 아방가르드의 내용을 만족시키며, 모더니티와 완전히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무에서 창조해내는 완전한 독창성을 불변하는 구성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모더니즘의 작품과 그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작품의 여러 가지 특성에서도 그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모더니즘과 아방가르드가 특성이나 형식적 존재의 유무에 있어 절대적 반대 입장이 아닌, 해석적인 관점과 개념적인 사고가 그 이념적 형성의 과정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더니즘적 이데올로기가 네오 아방가르드적 이데올로기로 설명되며 개념적 경계가 아니다. 네오아방가르드로 나타나는 팝아트, 미니멀리즘, 개념미술 등은 해석적사고, 예술의 경계의벽, 그리고 새로움의 비전을 제시하는 시대적 생산물이며 현대와의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되고 있다. 네오아방가르드가 현대 미술사에서 또는 가구의 역사에서 서로 호흡하고 상생하면서 완성의 의미가 아닌, 아방가르드가 가진 “새로움” “혁신과 혁명” “미래지향”등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과 미래가 확대되어지고 전진하고자 했다는 것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Table.1. A characteristic of Neo-avantgarde

사조 특성	미래지향	혁신	부정	표현특징	경구
모더니즘 (Modernism)	현실을 극복하고자하는 새로운 예술경향	초현실주의 또는 표현주의로 표출	모든 재현적 구속과 인습을 파괴	즉물적인 성향을 기초로 단순하며 기하학적인 조형성, 미니멀리즘의 모태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팝(Pop Art)	진보된 기술과 재료의 실험적 혁신	전통에 대한 재해석, 성회복, 다양한 색채와 장식의 시도, 그리고 탈 유형화	반 모더니즘, 탈 모더니즘의 전통과 인습을 거부	새로운 가구 개념을 일상의 새로운 형태로 전환, 복제, 반복의 기법	이것이 내일이다
미니멀리즘 (Minimalism)	새로운 개념의 미술의 의식을 가진 물성 발견	주관적 편견과 작가의 감정을 배제하는 형식	최소한의 조형 수단, 본질에 대한 탐구, 다의 부정정신이 정신적 바탕	작품의 색채, 형태, 구성을 극히 단순화하는 특징과 재료의 단일성 구성의 반복성 환원성, 현존과 장소	장식과 죄악
개념미술 (Conceptual Art)	작가에 대한 관념 해체	인지의 문세를 새롭게 보다 (아이디어는 미술을 만드는 기계가 된다)	반 미술적인, 반 관습적인, 반미학적	재료의 영역뿐 아니라 작품 존재의 형태도 부정형적 이고 불완전하거나, 시간에 따른 변화를 포함하여 시간이 경과하면서 소멸되는 등 폭 넓은 모습의 작품	아이디어는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

5.참고문헌

Clement Greenberg. 1965. Modernist Painting. Art and Literature, no.4. (Spring 1965). London: pp.193-20.

John Pawson. 1996. Minimum. Phaidon Press. London: p.8.

Lesley Jackson. 1998 The Sixties. London. Phaidon Press: p.162.

Richard Hamilton. 1968. Roy Lichtenstein <Studio International>. Vol.175. no.896. (Jan, 1968). London: p.29.

Werner Blaser. 1982. Mies van de Rohe Furniture and Interior. Roger Marcinik. New York: p.9.

로렌시나화란트리. 2006. Masterpieces from the Vitra Design Museum Collection. 노란상자. 서울: pp.79-220.

리차드코스텔라네츠. 양은희 옮김. 1997. 아방가르드. 시각과언어. 서울: pp.21-294.

정성훈. 2006. 제품조형에 있어서 미니멀리즘 경향성에 관한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지. 서울: p.176.

정승기. 2002. 미니멀 아트에 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서울: pp.5-198.

진휘연. 2004. 아방가르드란 무엇인가. 민음사. 서울: pp.7-259.

켄네츠베이커. 김수기 역. 1993. 미니멀리즘. 연화당. 서울: pp.10-14.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03. 20C 의자디자인. 초판. 기문당. 서울: pp.37-145.

한영호. 1999. 현대가구디자인의 미니멀리즘 경향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디자인연구소. 서울: p.4.